

文·安의 구애...천정배 “결론은 아직”

“더민주 패권주의 해체 확신 못 쥐” 일단 불응의사

安과 회동 “공통된 인식”...정의당과는 “후후 고려”

‘국민회의’ 창당을 주도하고 있는 무소속 천정배 의원은 21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의 공개·공식적 통합 논의 제안에 대해 “더민주의 현재 상황은 전반적으로 패권주의가 해체될 수 있다는 확신을 못 준다”며 일단 불응의사를 밝혔다.

천 의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당사에서 개최된 당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야권의 총선 승리와 정권교체로 가는 길의 관건은 결국 패권주의 해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그는 “우리는 문 대표의 사퇴 결심 표명, 총선에서 새누리당 과반수 저지

에 무한책임을 지겠다는 부분은 진전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천 의원은 정의당 심상정 대표의 야권 연대를 위한 ‘범야권 전략협의체’ 구성 제안에 대해 “지금 야권 지지자들은 한 목소리로 박근혜 정권의 실정을 함있게 견제하고 정권을 바꾸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심 대표의 인식에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국민회의로서는 진보정당인 정의당과의 연대는 다른 야권 세력들과의 연대 문제의 가닥이 잡힌 다음에 고려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그는 야권통합을 선택할 때 고려되는 가장 중요한 기준에 대해 “저희는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정권 교체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열망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총선 승리 위해서는 야권의 연대나 통합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렇지만 무원칙한, 기존 패권주의를 극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원칙한 통합이 이뤄진다고 해서 총선 승리로 고통 겪고 있는 국민에게 실질적 희망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광주 현역의원들이 더민주

탈당 후 국민의당에 합류한 것에 대해 “정치적 생존을 위해 새 길을 간다는 것 이상도, 이화도 아니다”며 “이런 것이 앞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19일 국민의당 안철수·김한길 의원과 회동한 것에 대해 “야권 연대와 통합에 관해 원론적 대화를 한 자리였다”며 “구체적인 협상과 조건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대표직 등) 어떤 직을 제안하거나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서로 진지한 대화를 해볼 수 있는 최초의 만남이었다”며 “원론 수준에서는 상호 간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의화 “쟁점법안 직권상정 없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쟁점 법안에 대한 직권상정은 없다고 밝힌 21일 오후 국회 의정실에서 정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단이 만나 자리에 앉아 있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원우철 원내대표, 정의화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

/연합뉴스

정의화, 새누리 복당해 광주 출마?

“힘지 출마 요구시 검토...선거구획정 설 전 해결”

정의화 국회의장은 최근 정치권에 일고 있는 호남 출마설에 대해 ‘당에서 힘지 출마를 강력히 요구해오면 검토해 본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장의 측근은 22일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만약 출마하게 되면 국민의당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새누리당으로 복당해서 출마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남 동부권이 아닌, 상징성이 있는 야권의 심장부 광주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측근은 이와 함께 “오래 전부터 호남 출마설은 있었다”며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출마 요구를 했었다”고 전했다.

정 의장은 새누리당 출신으로 부산 중구·동구에서 내리 5선(15대~19대)을 했다. 국회의장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다는 국회법에 따라 정 의장은 현재 무소속이지만 출마를 하게 되면 3월에 복당이 가능해진다.

정 의장은 또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을 설 이전에 해결해야 한다”면서 “이제 제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한다. 진행된 논의를 바탕으로 타협 가능한 조정안을 갖고 양측 입장을 조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주선 당명 ‘통합신당’...시·도당 창당 돌입

박주선 의원이 주도하는 통합신당 창당 준비위원회는 21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당명을 ‘통합신당’으로, 당색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창당한 새정치국민회의의 상징색인 녹색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로고도 공개했다.

창준위는 또 유선호·장세환 전 의원, 안중운 전 농림부 차관, 박종식 전 수협중앙회장, 김영일 전 불교방송 사장, 이국 CJB 청주방송 대표, 이영준 전 한국JC 회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등 당직 인선도 마쳤다.

나아가 창준위는 이날 오후 2시 경기 안산 한양대 게스트하우스에서 경기도당 창당대회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22일 서울시장, 25일 제주시도당 창당대회를 열 예정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더민주’ 탈당 조경태 새누리 입당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이 21일 여당인 새누리당에 입당했다.

3선의 조 의원은 이날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입당 인사말을 통해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의원이 되겠다”며 “조심을 잃지

않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는 정치를 여려분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입당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자신의 지역구인 부산 사하을에서 석동현 전 부산지검장, 이호열 고려대 교수 등 새누리당 예비후보들과 공전 경쟁을 벌인다.

/박지경기자 jkpark@

4·13 총선 현장

북구 장애인복지관서 배식봉사 활동

최경환 광주 북구를 예비후보

최경환 광주시 북구를 예비후보는 21일 광주시 북구 시립장애인복지관에서 (사)민생평화광장 달팽이 봉사단원들과 함께 배식봉사를 실시했다.

민생평화광장 지도위원인 그는 지난 해 3월부터 매달 ‘사랑나눔 봉사활동



day’를 지정한 뒤 장애인들을 위한 배식봉사활동을 해왔다.

그는 “앞으로도 꾸준히 취약계층을 위해 더 많은 봉사활동을 펼치겠다”면서 “사람을 나누는 봉사활동이 많이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세비 삭감·무노동무임금 법제화”

진선기 광주 북구갑 예비후보

진선기 광주시 북구갑 예비후보는 21일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국회의원 특권을 자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우선 세비 30%를 삭감하고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법제화하겠다”면서 “정치권에서 세비 삭감과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합의, 이행되지 않는다면, 관철



될 때까지 내 자신이 먼저 스스로 실천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극심한 경제불황속에서 민생이 실종된 국민은 분노하고 있는데, 의정활동을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는 회의 불출석 때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세비를 자진 반납하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채용 지역인재 35% 의무 할당율”

김영집 국민의회의 광주위원장

김영집 국민의회의 광주시장 공동위원장은 21일 공공기관이 신규 직원을 뽑을 때 지역인재를 35% 이상 채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나주혁신도시 취업지망 청년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이 신규 직원 채용 때 지역인재



를 35% 이상 채용하는 물론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산학연관 협력및 인력양성을 위한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청년실업 해소방안으로 청년수당제 도입, 청년고용기업 인센티브제, 청년 주거공간 확충지원 등 정책을 제안했다.

동구 발전 ‘모아모아 전략’ 제시

오형근 광주 동구청장 예비후보

오형근 광주시 동구청장 예비후보는 21일 동구 3대 발전전략으로 ‘모아모아 전략’(자원을 모으고, 과제를 모으고, 주민을 모은다는 의미)을 제시했다.

그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동구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혁신적인 변화와 발전이 요구되는 지역으로, 장기적인 발전전략이 절실하다”라며 “구의 역사·문화·



자연·관광 자원을 하나로 모아 지속 성장의 엔진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청년실업·저출산, 노인복지, 도심재개발 등 핵심 의제를 하나의 틀에서 해결하고 주민자치의 핵심인 주민들을 하나로 모아 자치공동체로 만들겠다”고 피력했다. /이종형기자 golee@

ABC협회 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체육관련시설 2층 상가매매

(에어로빅, 헬스, 당구장, 체육관, 기타) 넓은주차장 용봉, 문흥지구 중심상가

- 전용 289㎡ (락볼링장 옆 점포2칸)
- 매 7억5천만원(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5천만원

락볼링장 매매

전남대 부근 최신시설 락볼링장
현 성업중 직영하실분 환영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5천만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5천만원

문의 010-3647-4747 (급매 조정가)

북성중 28회 친구 찾기

- 상균이, 호승이, 재준이와 28회 졸업생 690명을 찾습니다.
- 북성28회를 아시면 신고해주세요 (매월 28일 정례모임중)

김행곤(북성28회 살림꾼) 010-3379-2209

www.솔향기맑은터.com

솔향기맑은터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솔향기정식 & 돼지갈비
전문점 예약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24시간 OPEN!!



- ▶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씨는날 화, 목, 토, 일
- ▶ 불씨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2인승, 25인승 무료이용
- ▶ 멸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 ▶ 염가공급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사전예약시 ▶ 12인승, 25인승 차량 무료운행 / 컨퍼런스룸, 족구장 무료이용 가능



맛의향연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행복한 모임을 위한 돼지갈비전문점으로 바뀝니다.
돼지갈비, 매콤갈비찜정식, 떡갈비정식, 솔향기정식
-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찰송가마 찜질방 50% 할인
- ▶ 주말 및 연말연시 모임은 사전예약으로 차질없게